

## ‘부안 라온 프라이빗’ 랜드마크 탄생

25층 · 다양한 커뮤니티 · 희소가치 높은 평가 받아

부안군민의 여유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신의(信義)와 최선(最善)의 경영이념을 자랑하는 (주)라온건설(회장 손천수)이 부안의 최고 25층 다양한 커뮤니티 등 지역 랜드마크가 탄생한다.

지역 내 민간아파트 최대 규모는 물론 최고층인 25층을 보유한 랜드마크 아파트로 생활 인프라는 물론 인접 교통 면에서도 뛰어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최고층 아파트 공급이 전무했던 부안군에 조성 되는 새 아파트인 만큼 희소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다 ‘부안 라온 프라이빗’은 대부분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좋아하는 중소형 면적의 주택형으로 전용 75㎡ 타입은 전 세대, 전용 84㎡ 타입은 일부 4Bay 구조를 갖춰 101㎡ 타입은 전 세대 4Bay-4Room 구조로 설계된 등 차별화된 특화평면과 대형 드레스 룸, 전 세대 팬트리 또는 알파룸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단지 통풍에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가 위치해 있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북측에 위치한 23번 국도와 30번 국도를 이용하면 인접도시인 김제, 정읍시로 접근도 수월하고 도보 약 10분 거리에는 부안종합버스터미널과 단지 반경 1Km 이내에 부안동초, 부안여중, 부안고, 부안여고 등 다양한 학교와 함께 부안군립도서관도 위치한다.

건분주택 오픈에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주말 3일 동안 약 1만1,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라온건설 관계자에 의하면 ‘부안 라온 프라이빗’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을 병덕리 169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 75㎡ 91가구 △전용 84㎡A 245가구 △전용 84㎡B 147가구 △전용 84㎡C 48가구 △전용 101㎡ 39가구 등 총 570가구의 규모로 구성된다.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부안군에 예고된 세관급 개발사업,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 등의 개발 호재에 따른 미래가치와 우수한 주변 생활 인프라에 대한 고객들의 호응



부안군민의 여유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신의(信義)와 최선(最善)의 경영이념을 자랑하는 (주)라온건설(회장 손천수)이 부안의 최고 25층 다양한 커뮤니티 등 지역 랜드마크가 탄생한다.

이 높았다”며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 쾌적성을 높인 맞통풍 구조 등의 혁신적인 설계는 물론 멀티미디어 룸, 스크린골프연습장, 키즈&맘스카페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입 소문을 타며 주말 내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현장분위기를 설명했다.

한편 ‘부안 라온 프라이빗’ 분양

일정은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일반 1순위에 이어 11일 2순위 청약접수, 17일 당첨자 발표, 29~31일 정당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건분주택은 부안군 부안을 병덕리 801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0년 5월 예정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 이스타항공, 인천-미시카기 직항 전세기 운항

이스타항공이 인천-미시카기 노선 운항을 시작한다.

이스타항공은 인천-미시카기 노선을 1월9일부터 1월25일까지 주 3회(화, 목, 일) 부정기편으로 운항한다고 밝혔다.

주 3회 운항하는 인천-미시카기 출발편(ZE6251)은 오전 11시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오후 1시 일본 이시

카기 공항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편(ZE6252)은 미시카기 공항을 오후 1시50분 출발해 오후 4시 인천에 도착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오는 17일 인천-오타이 취항을 앞두고 있으며 규슈지역 4개 현(후쿠오카, 가고시마, 미야자키, 오이타)으로 운항을 통해 다구

간 여정 이용이 가능해진다. /뉴스

### 한은, 디지털화폐 발행 연구 본격

한국은행이 가상통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선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가상통화 연구에 한창인 가운데 한은도 동참,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은은 9일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는 금융결제국, 법규제도실, 금융안정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발권국, 국제국, 경제연구원 등 모두 8개 부서가 참여한다.

TF는 가상통화가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국제결제은행(BIS) 등과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화폐 발행 관련 이슈를 연구할 계획이다.

가상통화와 관련된 대응을 위한 전달 조직도 만들어진다. 한은은 이날

말 정기인사에서 금융결제국 내에 자칭 ‘가상통화 연구반’을 꾸릴 예정이다.

한은이 TF와 전달 조직을 만들고 본격적인 연구에 나선 것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의 열풍으로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연말 송년 간담회에서 “가상통화의 투기적인 모습에 모든 중앙은행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가상통화가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과 통화과금경로, 지급결제시스템, 금융안정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초점을 맞춰 중앙은행들이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은은 “앞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이 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정부와 감독당국 등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 작년 11월 신설법인 8805곳... 10% 늘어

지난해 11월 새로 설립한 법인이 8805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8023개) 대비 9.7% 증가한 8805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831개(20.8%) ▲도소매업 1610개(18.3%) ▲부동산업 818개(9.3%) ▲건설업 746개(8.7%) 등의 순으로 설립됐다. 증가율은 ▲전기·가스·공기조절공급업(154.1% 증가) ▲농·임·어·광업(71.6%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35.4% 증가) 등이 전년동월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

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가운데 대구(31.7%), 광주(28.8%), 전북(26.8%)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에 신설된 전체 법인은 8만9708개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8758개(20.9%) ▲도소매업 1만7712개(19.7%) ▲건설업 9267개(10.3%) ▲부동산업 8672개(9.7%) 등이 많았다.

대표자의 연령별로는 ▲40대 3만2218개(35.9%) ▲50대 2만3948개(26.7%)가 법인 설립을 주도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60세 이상에서 16.1%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크게 늘었다. /뉴스

## “테스터 화장품, 비위생적”

3개 중 1개 기준치 초과 미생물 검출

다수 제품 뚜껑 없이 비치, 개봉일자 기재 필요

소비자들이 다양한 색조화장품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미리 사용해 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화장품 매장에서 ‘테스터 화장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 제품 일부가 위생미생물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테스터 화장품은 뚜껑 없이 개봉된 상태로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공기 중의 먼지·습기, 사용자 간의 교차오염 등으로 위생미생물이 쉽게 오염·증식될 수 있다. 또 개봉일자도 기재되어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유통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치한 16개 매장의 42개 테스터 화장품을 대상으로 비치·표시상태 및 미생물 위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16개 중 13개 매장(81.3%)에서는 아이새도 제품을, 9개 매장(56.3%)에서는 고체형 제품(립스틱)을 뚜껑이나 닫개 없이 개봉된 상태로 비치했다.

제품을 위생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제공하는 곳은 1개(6.3%) 매장에 불과했다.

또 조사대상 테스터 화장품 42개 중 6개(14.3%)만 개봉일자가 기재됐다. 13개(31.0%) 제품은 유통기한·제조일자도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대상 테스터 화장품 42개 중 14개 제품(33.3%)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새도 16개 중 2개 제품(12.5%)에

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10~최대 2,300 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 초과 검출됐다. 1개 제품(6.3%)에서는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마스크라 10개 중 5개 제품(50.0%)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50~최대 2,200 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 초과 검출됐다. 립제품 16개 중 4개 제품(25.0%)에서는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1530~최대 214만cfu/g 수준으로 기준(1000 이하) 초과 검출됐다. 3개 제품(18.8%)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아이새도·마스크라·립제품 등의 용기는 대부분 뚜껑을 열어 사용하는 단지 형태(Open jar)로 튜브(Tube) 또는 펌프(Pump)식 제품보다 사용자들로부터 인한 교차오염 위험이 높다. 오염된 제품을 눈·입술 등과 같이 민감한 부위에 사용할 경우, 피부질환·염증 등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스터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화장품협회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업체에는 매장 내 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또 테스터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사용자 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이용할 것 ▲눈·입술 부위에 직접적인 사용은 자제하고 손목·손등 부위에 테스트할 것 ▲제품에 기재된 개봉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 ▲테스트 후 최대한 빨리 제거할 것 등을 당부했다. /뉴스

전라북도 전북농협

# 자연의 건강한 미소

##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